

漁船時論

사회정화운동과 국가사정업무추진은 선진조국창조의 초석

본회 감사실

실장 유 재 흥

우리는 집을 지을때 먼저 땅을판다.

집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깊이 또한 깊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은 두 말 할것도 없이 새로 짓는 집이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제구실을 하기위한 기초공사로서 이때 쓰이는 자갈과 시멘트나 철근이 초석이 되고 그 위에 방, 하루, 부엌, 목욕탕 등 기타 주인이 자기취향에 맞추어 필요한 제반 부수시설과 건축물이 들어 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가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잘 살고 그 기반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초석이 잘 다듬어져야 함은 두 말 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다면 우리 4천만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제 5 공화국 출범이래 솔하게 많이 각종 “매스콤”으로 전달되거나, 공직사회 및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공한으로 시달되어 기이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술해 보기로 한다.

○ 3대 부정심리의 추방

우리 민족의 역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어질고 착한 민족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토는 그 긴 세월을 이웃들의 침략에 대항해 싸우느라 어느 한 시도 태평성세를 누르며 살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살다보니 언제부터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덧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크게 요약하면 “무질서 심리” “부패 심리” “물가오름세 심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3대 부정 심리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지 않는 한 진정한 복지국가 건설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남이야 어떻게 되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상관이나 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국가를 망치고 자기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4천만 민족이 모두 자기 이익에만 치중한다면 그때도 국민총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155마일 휴전선이 과연 온전할 것인가.

그래서 사회정화운동이나 국가사정 업무추진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정화위원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의식개혁 9대 실천요강”을 제정하였으므로 우리는 이의 실천을 생활신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정직하자

양심적인 개인, 깨끗한 정부, 도덕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풃조를 과감히 추방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시대 새 가치관을 정립하여 온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정부는 대화행정과 공개행정을 확충하여 정책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약속지키기를 생활화해야하고, 비방, 무고, 모함풍조를 엄격히 배격하여야 한다.

2. 질서를 꼭 지키자

전전한 생활질서, 조화로운 공공질서를 위해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질서 확립하기 (바르게 걷고, 바르게 운전하기등), 행락질서 바로잡기 (풍기문란, 바가지요금 근절, 깨끗한 환경 조성등), 또한 상거래 질서 바로잡기 (가격표시, 영수증 주고받기, 불량상품 안 만들고 안사기

등), 공중질서를 확립하기(안 버리고, 차례를 지키고, 공공시설을 내 것같이 아끼고 보호하는 등)을 잘 지켜야 한다.

3. 창조정신을 발휘하자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 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자신에는 엄격하고 가정에는 가풍과, 사회에는 예절을 꼭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풍양속의 참 모습을 찾아야겠고, 가정에는 가훈을 가져 2세 교육에 지표를 삼고, 모든 예절을 바르게 지킬 것이며, 부모님을 편하게 잘 모실것은 물론 윗사람이나 어른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4.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모든 직업인은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 등 고질적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하여 상사나 윗 어른에는 존경할 줄 알고, 책임은 내가 지고 공과 포상은 부하에게 돌려 줄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이나 예외의식과 관존민비의 자세를 버려야 하겠고, 독선이나 아부를 배격하고 배금주의나 기회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 또한 공과 사를 분명히 분별하고, 합리적 사고와 창의적 복무 자세를 확립해야 하며, 소신과 책임, 공정하고 겸소한 생활관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 자기본분에 충실하자

남의 일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로 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본분』에만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만 국민총화는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와 직업인은 자기 직업윤리를 찾아서 일해야겠고 기업가는 양심적인 기업윤리를 함양해야 겠으며, 모든 사람은 자기직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인간이 되자

허세허식이나 사치풍조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시간이나 물자 또는 노력의 낭비등을 제거함으로써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비리요소를 과감히 씻어내어 자기『분수』에 맞는 생활 자세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넉넉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가정의례를 간소화해야겠고, 우리나라 생산품을 애용하여 불필요한 외화의 낭비를 막아 외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이나 국가나 남에게 빚을 지고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알뜰살림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아껴서 저축하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저축된 돈은 경제성장에 활용되어 풍요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므로서 선진조국창조가 앞당기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7. 주인의식을 갖인 국민이 되자

이 나라는 바로 내 조국이고 이 마을과 이 직장의 주인도 바로 내가 된다는 주인의식은 무관심을 없애고, 모든일에 참여의식을 제고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의타심을 버리고 자기정신을 배양하여 민주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생활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비리에 대하여는 단호히 고발이나 신고정신을 가져야 한다.

며칠전 시내버스 속에서 환갑이 다 된 분이 소매치기와 격투를 벌리고 있는 데도 30여명이나 되는 다른 승객들은 남의 일이라고 보고만 있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어찌다가 우리의 사회 정의가 이렇도록 메달라 버린 것일까?

참으로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그 때 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필자도 방관만 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우리들 모두 제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8. 국민 모두는 화합해야 한다

지연(地緣)이나 학연(學緣), 혈연(血緣)등 분열이나 갈등요인을 일체 해소하고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이 내려온 파벌과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하므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간의 마음의 담을 허물고 직장에서는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체감을 갖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9.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자

옛날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

平天下)란 말이 있다. 그야말로 진리다.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들 교육에는 출신수범하여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주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제고 하여야 한다.

옛날 「인생 70 고려장」이란 풍습이 있을 때였다. 즉 70살이 되면 부모를 산으로 업고 가 버렸던 시절, 어느 농부가 효성은 지극하나 나라의 법이니 하는 수 없이 70이 되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으로 가서 버리고 산을 내려오려할 때, 깊은 산까지 따라온 열살짜리의 아들이 아버지가 버린 지게를 주워서 지고 산을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린아들의 대답이, “아버지께서 70이 되실때 지게로 지고와서 버리자면 지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때서야 그 아버지는 크게 깨닫고 비록 법을 어긴죄로 극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효도를 해야 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버린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와서 마루밑에 숨겨 모셔놓고 극진한 효성을 다 했다.

그러던 어느날, 청국에서 사신을 보내와서 어려운 문제를 제시 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공을 더 올려 받겠다고 위협을 했다. 그러나 막상 조정에서 그 문제를 보니 실로 그 당시로서는 기가 막히는 난제가 아닐 수 없었다.

즉 문제란 것이 :

첫째, 커다란 진주같은 구슬에 꼬불 꼬불한 S자로 구멍이 뚫린 것에다 명주실을 꿰어줄것,

둘째, 짙을 태워 그 재로 새끼 열발을 꼬아서 줄것 등인데, 이 문제를 놓고 조정은 발각 뒤 집했다. 임금이하 온 조정 벼슬 아치들이 아무리 궁리를 하고 묘안을 짜 보아도 별 뽀족한 수가 없어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린다”고 공포하고 백성들의 묘안과 궁리를 모으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없고 약속된 날 짜는 바짝 다가오던 어느날, 마루밑에 어머니를 숨겨 놓은 효자가 어머니 밥상을 시중들면서 나라의 고충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때 늙으신 어머니께서 묘안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다. 잠깐

놀란 아들은 드디어 임금님을 배알하고, 그 어렵고 괴로운 문제를 소신이 풀어 나라의 근심을 없애겠다고 었드려 진언하니, 임금님께서서는 즉시 문제를 하명하기에 이르렀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대로 S자 구슬구멍 한쪽에 꼴을 발라놓고 꼴을 좋아하는 불개미 한 마리를 잡아 그 잔등에 명주실을 꿰어 S자 꼴이 발린 구멍 반대쪽에 불개미를 밀어 넣으니 꼴 냄새를 맡은 불개미는 조금뒤 꼴이 발린 반대쪽 구멍쪽으로 기어나오게 되어 S자 구슬에 드디어 명주실을 끼우게 되었다.

또한 두번째 문제인 불 태운 재로 새끼 열발을 꼬아 놓는 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먼저 열발의 새끼를 담아갈 철판위에 놓고 진한 소금물을 몇번이고 새끼에 적신뒤 강한불로 태우니 새끼가 다 타들어 가도 그 모양티가 흩어지지 않고 웬만치 움직여도 흩어지지 않게 되어, 청나라 사신들이 가져온 문제를 모두 풀었으니 청나라 사신들은 과연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지혜가 뛰어난 나라임에 놀라 즉시 자기 나라로 도망치다시피 물러갔다고 한다.

드디어 임금님께서 이 착한 농부(아들)에게 약속대로 나라에서 상을 내리겠다고 하니 농부는 그 자리에 었드려 통곡 하면서 나라에 쫓긴 일(고려장을 하지않고 마루밑에 어머니를 모셔 놓은 일)을 토로하고 오늘의 이 묘안이 모두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임을 아뢰게 되었다.

임금님은 이때에서야 비로소 「인간 70 고려장」이란 법이 얼마나 악법이었던 가를 깨닫게 되어 그 아들에게 큰 상을 내림과 동시에 고려장이란 법을 폐지하고 늙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명을 내리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고려장이 없어졌다고 어릴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옛이야기가 문득 생각나기에 여기에 옮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 하루속히 선진조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 하는데 열과 성을 다 바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주: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는 필자가 어릴때 들은 이야기로서 역사적 연대와 진위여부는 확실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끝—